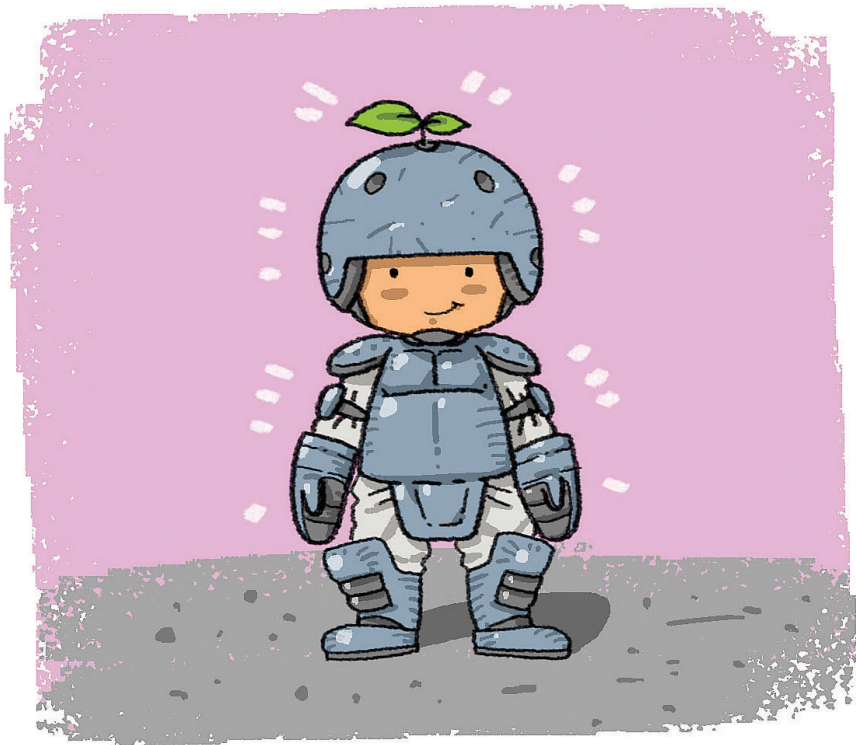


자신 바로 잡아줄 좌우명 만들어 봐요



희망의 꽃씨인 나를 아끼고 보호하겠어요

I will take care of myself because
I have great potential.

환경운동가, 동물학자, 침팬지의 어머니. 모두 제인 구달(Jane Goodall, 1934~) 박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인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즐겁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해서 닭장 안에서 닭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고 지렁이를 침대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제인은 아프리카에 가서 동물과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제인은 아프리카에 갔다가 자연사박물관장인 루이스 리키를 소개받고 동물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학도 나오지 않은 여자가 동물 연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인을 인정하지 않고 뼈대한 눈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침팬지 연구에 나섰습니다. 함께 살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인이 지금처럼 행복해 보인 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인을 믿지 않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제인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침팬지들에게 사랑을 쏟으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고 육식 습관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고아를 입양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인 구달은 동물연구가가 되고 싶다는 자기의 꿈과 희망을 차근차근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꿈과 희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며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정한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꿈이 꺾이고 희망이 안 보일 때도 있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 꽃 필 때까지 스스로 믿고 격려하면서 희망의 씨앗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해 보아요.
(제인 구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발표해 보아요.)
*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런 꿈을 갖는 이유는?)

존경하는 사람을 닮으려 노력하겠어요

I will have a role model I can look up to.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년)는 후기인상파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그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밀레(Jean Francois Millet, 1814~1875년)의 목판화를 보고 '이 사람은 천재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 뒤로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베껴 그리지 않고 고흐 나름대로 색을 입히고 선을 달리했습니다.

고흐는 음악가들이 베토벤의 음악을 재해석하듯이 자기도 밀레의 그림을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흐는 밀레를 평생 스승으로 여기며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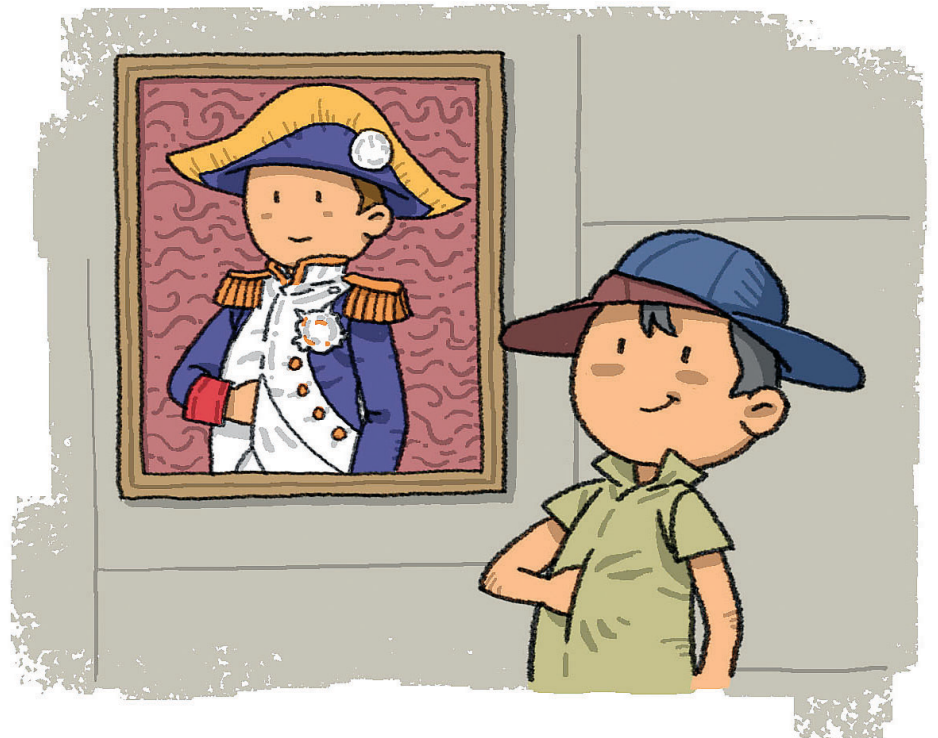
누군가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역할모델이라고 합니다. 고흐는 밀레를 역할 모델 삼아서 자기의 작품세계를 완성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도 미국의 미셸 판을 역할 모델로 삼아서 피겨여왕을 꿈꾸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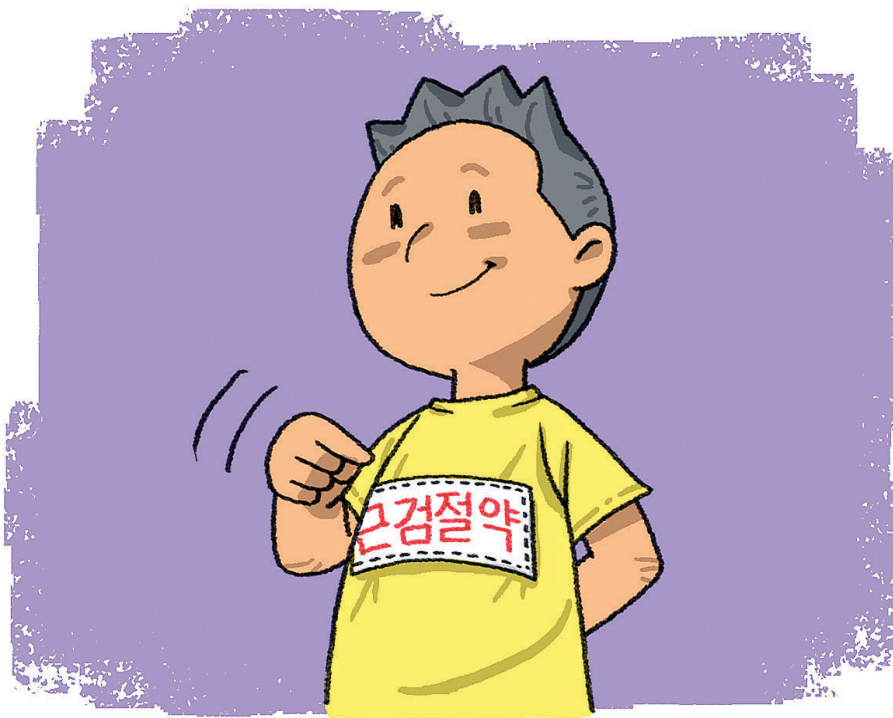
아직까지 역할모델이 없다면 진지하게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부자라거나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역할 모델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할 만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역사 속 인물도 괜찮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친구, 친척, 형제, 부모님, 선생님, 모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할 모델의 태도와 가치관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 모델만 똑같이 따라하느라 자기의 생각이나 결정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교과서를 먼저 보고 참고서를 보듯이 역할 모델은 인생의 참고서일 뿐입니다.



* 왜 닮고 싶은가요?
* 여러분은 역할 모델이 있나요? (역할 모델로 삼고 있는 이유는?)
* 어떤 사람을 닮고 싶나요?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인들의 좌우명을 말해 보아요.
*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싶은 좌우명을 만들어 보아요.

좋은 가르침의 말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I will engrave good teachings in my heart.

최영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사는 집이 초라했으나 만족하고 살았으며 옷과 음식이 검소했다.

남이 좋은 말을 타거나 좋은 옷을 입어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재상과 장군을 곁에서 지위가 높았지만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최영의 깨끗함에 놀라워했다.

〈고려사〉라는 역사책에 나오는 최영(1316~1388년)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영 장군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습니.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최영 장군이 열여섯 살 때

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평생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말을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이 말은 우리나라 독립과 통일에 힘쓴 김구(1876~1949년) 선생님의 좌우명입니다.

"불가능이 뭘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좌우명입니다. 자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좌우명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 남의 말을 따라 써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가다듬을 수 있고 때때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사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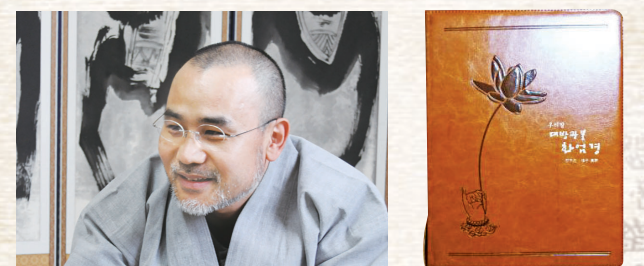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의 화신불인 약사여래불의 원력을 믿는지요? 누구나의 마음에 존재하기에 약사여래불의 가피와 선공공덕으로 진귀(眞歸) 수행자와 인연되어 차 한잔 혹은 강의 시간 만으로도 각종 암(癌)세포와 영가 및 저승사자 등 모든 질병들의 고통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믿기 힘든 기적같은 원력을 직접 몸으로 체험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 ▶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2시간)
- ▶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2시간)
-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 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화엄경 강원 전화(대구) 1899~9532